

倫理問題의 새 吟味

現世代 휴머니즘의 本質 (3)

白鐵

요지음 우리 文壇 作品에 대하여 우리들 自身부터가 커다란 情熱과 興味를
늦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 作品의 殆半이 너무 우리 自身の 既知, 既明인 市
井雜事를 追描하는데 始終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題材가 市井 及至 身邊 事
實에 關聯된 것을 專혀 非難하는 것이 아니라, 그 雜事를 그대로 追隨해 그
리는 데 리알리티-[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作家의 단순한 精神이 作
品을 극히 俗된 平面性에 더러트리고[떨어뜨리고] 作品을 無味하게 만든다
는 意味다. 이 點에 限해서 林房雄이 『쿠소리아리즘』라고 叱罵하고 崔載瑞氏
가 『안증방이[얇은뱅이] 文學』이라고 일흠 지을 때에 適切한 指摘이 아니라
고요? 또한 最近에 와서 作家와 批評家가 서로 背離되고 잇는 傾向이 累次
指摘되고 잇스나, 그 原因이 여러 條件에 잇슬 것이로되, 그 重大한 原因이
今日 리아리즘 作品의 俗化에 잇다고 볼 수 잇지 않을까?

『와일드』의 말에 鑑하여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잇다.

萬一 今日의 作家들이 每日 自己가 한 바- 그것은 작가 뿐이 아니라 누구
나 既知既行의 事實을 그리는데 始終할 것 代身에, 行하고 남은 곳 行하지
못한 部分에서부터 쓰기 시작하면 今日 리아리즘 小說의 俗化는 구원되리라
고. 또한 今日 作家와 批評家의 背離도 그것으로 原因은 消滅될 것이 아닐가
라고. 文學의 리얼리티-는 生活의 리얼리티-와는 正反對의 世界다! 적어도
그와는 曄 宇宙의 世界다. 생각건대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書簡 中에서 當時
의 리아리스트들이 傾向에 다하여 그것을 現實 百分之一의 리아리즘이라고
攻撃하고 自己의 理想主義에 도리혀 眞實한 文學의 리얼리티가 있다고 말한
것은 그런 意味에서일 것이다. 이것은 文學者의 德은 오직 空想하는 世界에
存在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普遍人間과 同時同所의 가튼 日常生活의 經驗
가운데서도 文學者는 普通人間의 經驗 以上을 感得하는 곳에 그 德을 말할
수 잇다는 意味에서다. 그러기에 行하고 남은 곳에서부터 出發한다는 것은
決코 지-드의 有名한 聖書의 命題 『돌을 化하여 빵을 만든다.』는 말과도 背

馳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나는 다시 와일드에 도라 와서 그가 日常對話時에도 恒常 說話의 形式을 取하였다는 이야기를 記憶하거니와, 그와 가티 既存된 事實을 그대로 對話하는데 退屈과 憎惡를 느낀 것, 그 와일드의 文學精神을 나는 나데로 曲解하여 그가 文學者로서 既知既明의 事實에 대한 反逆의 精神이 있다고 解釋하고자 한다. 지-드에 對한 와일드의 影響은 지-드 自身이 말하는 바와 가티 決코 달갑은 影響이 아니었으며, 어떤 편으로 보면 지-드는 와일드와 正反對의 길을 거른 作家이거니와 그 지-드도 『와일드』의 文學精神과 唯一한 共通性은 그 既存 事實에 대한 反逆의 精神이었다.

바로 그 精神, 既存既知의 事實에 對한 反逆의 精神 위에 文學의 倫理는 開拓되어 온 것이다. 그 意味에서 文學者는 언제나 그 社會의 道德的 反逆者요, 그 道德을 보호하는 法에 對하여는 容納할 수 업는 罪人들이었다. 그러나 이 때에 잇서 그 罪人은 普通 罪人이 아니라 도스트엠프스키-는 그 罪人과 英雄을 同一한 人間으로 보았다.

『온갓 類의……立法者와 建設者들은 모도가 새롭은 法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遵奉되든 父祖 傳來의 舊法을 破棄했다는 一事로서도 한 犯罪者다.—라고 『라스코리니 콜호』는 論述한다.

—이런 事實을 一言으로 말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오로지 偉大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出群한 人物 가령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新奇한 말을 할만한 才能을 가진데 不過한 사람이라도 自己의 天性에 依하여 不可避的으로 犯罪者가 아니 될 수 업는 것이다』